

예술에 물들고 예향에 취하다



광주예술의전당이 8개 시립예술단의 '2026 상반기 라인업'을 공개했다. 왼쪽부터 광주시립극단, 창극단, 국악관현악단·소년소녀합창단의 지난 공연 모습.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클래식의 대규모 기획부터 전통예술 신작, 가족 관객을 위한 합창 무대까지.. 올해도 지역민들을 위한 풍성한 공연들이 광주예술의전당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광주예술의전당이 8개 시립예술단체의 2026년 상반기 주요 공연 일정을 공개했다.

먼저 창단 50주년을 맞은 광주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이병욱·광주시향)의 라인업이 눈길을 끈다. 광주시향은 올해 '새로운 도약'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클래식 of 깊이를 더한다.

가장 주목받는 무대는 5월 22일 예정된 정기연주회 'G 50'. 창단 50주년과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특별 무대로, 말러 교향곡 제2번 '부활'을 대규모 편성으로 연주한다. 소프라노 황수미와 메조소프라노 이단비가 협연하고, 시립합창단과 노이오페라코러스가 함께 무대에 올라 장엄한 사운드를 완성한다.

이에 앞서 2월 3일 정기연주회 'Nr.2'에서는 부소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은 피아니스트 박재홍이 협연자로 나서 브람스의 곡들을 들려준다. 쓸쓸한 겨울의 정서와 다가오는 봄의 희망을 함께 담아낸 프로그램이다. 이어 3월 20일 '보헤미아의 봄'에서는 피아니스트 박종해와 함께 차이콥스키와 드보르작의 곡을 선보이고, 4월 10일 '교향악축제 프리뷰 공연'에서는 'Leningrad'를 주제로 쇼스타코비치의 대작을 무대에 올린다. 약기별 매력을 조명하는 '오티움 콘서트' (2월 바순, 6월 비올라), '체임버 시리즈' 등 기획 공연도 병행된다.

광주시향 측은 "다양한 연령층과 음악적 취향을 아우르는 시민의 오케스트라로서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했다.

시립창극단(예술감독 김용호)은 병연 '도전'과 '열정'의 기운을 상반기 라인업에 담았다. 전통예술의 언어를 지키면서도 장르의 경계를 확장한 구성이 눈에 띈다.

첫 공연은 3월 14일 오후 3시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서 선보이는 '무대, 경계를 풀다: Unbound Stage'. 지난해 전석 매진을 기록한 마당창극 '열어볼 결심'에 실감형 영상 기술을 더해 몰입감을 끌어올린 버전이다. 가·무·악을

8개 시립예술단체, 상반기 라인업 공개
광주시향, 5월 50주년 연주회 '눈길'
창극단, 실감형 영상 더한 마당극 선보여
오페라·발레 등 광주예술의전당 무대에

한 번에 만나는 명품 국악 공연 '천변만화'는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상반기 마지막을 장식하는 작품은 6월 26일 소극장 무대에 오르는 창무극 '희정루방회도'. 광주목의 누정 희정루에서 열린 문인들의 계회를 기념해 그린 동명의 회화를 모티브로 삼아, 당시 사·음악·무용이 교류하던 장면을 '교유와 향유의 정신'으로 재구성한다.

시립국악관현악단(예술감독 박승희)은 '국악의 대중화'를 목표로 창작과 레퍼토리의 균형을 세운 시즌을 예고했다. 3월 19일 대극장 무대에 오르는 '진춘음악회'는 단원들의 창작 기량을 전면에 세운다. 문경미 단원의 위촉 초연곡 '고래', 김상욱 악장의 피리협주곡 '공동명의'가 오영미 부악장의 피리 협주로 연주된다.

4월 10일 소극장에서 열리는 제146회 정기연주회 'Luminous City-빛의 도시'는 김종욱 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를 객원 지휘로 초청한다. 전통예술을 통해 광주를 '기억의 도시'가 아닌 '살아 있는 도시'로 새롭게 해석하며, 광주가 품은 인간의 에너지와 리듬, 존엄을 무대에 담아낼 예정이다.

시립오페라단(예술감독 최철)은 오는 30~31일 대규모 오페라 하우스에서 '2026 달빛동맹 교류공연'으로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을 무대에 올린다. 3월 14일에는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오페라 갈라 콘서트 '60 Stars'를 연다. 광주를 대표하는 성악가 60여 명이 참여해 가곡과 오페라 합창곡 등 대중적 레퍼토리로 '오페라 축제의 장'을 만든다.

정기공연은 5월 15~1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극장2에 올리는 콘서트 오페라 '카르멘'. 자유로운 집

시 여인 카르멘과 군인 돈 호세의 치명적 사랑을 그리는 비제의 걸작을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구성해 접근성을 높인다. 오페라단 측은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지역 예술인들과의 화합을 도모하는 무대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시립발레단은 2026년 상반기 기획공연 6화와 초청공연 2화를 통해 관객과 만난다. 3월과 4월에는 '발레 살롱 콘서트' 시리즈로 발레의 매력을 보다 친근하게 풀어낸다. 3월 27~28일 'Voice of Spring'과, 4월 24~25일 '해설이 있는 발레'에서는 낭만발레부터 고전발레까지 다양한 갈라 작품을 해설과 함께 소개한다. 발레의 형식과 이야기를 곁들여 들려주며 처음 발레를 접하는 관객들도 부담 없이 무대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임창은)은 3월 12일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정기연주회 'Friendly Concert'를 열고, 부산시립합창단과의 협연으로 영·호남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4월 15~18일에는 지난해 전 회차 매진을 기록한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 '청구아·노을·자'를 소극장에서 다시 선보인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상임지휘자 오준혁)은 4월 4일 전당 소극장에서 정기공연 뮤지컬 '미라클(Miracle)'로 올해 첫 무대를 연다. 나일강에 띄워진 아기가 성장 후 민족을 해방하는 영웅이 되는 '모세'의 여정을 담아낸 작품이다. 두려움과 고민을 통과해 자기 길을 찾는 성장의 메시지를 아이들의 목소리로 전한다.

시립극단(예술감독 원광연)은 5월 8~10일 전당 소극장에서 우수 창작극 시리즈 '소녀들'을 선보인다. 지난해 '찾아가는 문화공연' 낭독극으로 먼저 관객을 만나 호평을 이끌어낸 작품을 본공연으로 확장한 것.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소재로 친일파 아버지를 둔 형제들의 갈등과 성장, 불의와 억압에 맞선 여성들의 주체적 항거를 담았다.

윤영문 전당장은 "지난해 전당을 아껴주신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에 보답하고자 올해 프로그램을 더욱 공들여 준비했다"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완성도 높은 무대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35만명이 '절에서 하룻밤'

템플스테이 내·외국인 34만5천명 역대 최다

지난해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내외국인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8개 사찰에서 진행된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은 내국인 29만3704명, 외국인 5만5515명을 합쳐 총 34만9219명이었다.

2024년보다 5.1% 증가해 역대 최다다.

두 차례 이상 참가한 경우 각각 계산해 연인원으로 집계하면 작년 참가자 수가 총 62만5304명에 달한다.

사찰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숙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시작됐다.

첫 해 33개 사찰에서 내국인 1299명, 외국인 1259명이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20여년간 참여 사찰도, 참가자도 빠르게 늘었다.

특히 외국인 참가자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2018년 5만3291명으로, 처음으로 5만 명을 넘겼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급감했는데, 지난해 다시 2018년 기록을 뛰어넘었다.

작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가운데 K팝 등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져 템플스테이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내국인의 경우도 미혼 남녀 템플스테이인 '나는 절로'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으며 참가자 증가가 이어졌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참가자는 내외국인을 합쳐 총 418만 4373명(연인원 823만4361명)이다.

/연합뉴스

북한군 계급 도입제 논문 화제

이성춘 북한학 박사, 군관이하 군사칭호 도입 고찰

1948년 조선인민군 창설 이후 군사칭호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창설 단계부터 1955년까지 군관이하의 군사칭호 도입에 관한 사항을 고찰한 논문이 발표돼 화제가 되고 있다.



동국대 북한학과 대우교수인 이성춘(사진) 북한학 박사는 최근 저명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통권 제131호, 극동문제연구소)에 북한군 군관이하 계급 도입제도에 관한 의미있는 논문을 발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조선인민군 군관이하 군사칭호 도입에 관한 연구: 1948년 창설부터 한국전쟁 및 1955년까지'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군관이하 군사칭호는 군관 이상 군사칭호 도입과 마찬가지로 1952년 12월 31일에 공식 제정되어 1953년부터 수여되기 시작했다"며 "인민군 창설 초기에는 군사칭호 없이 군사직위만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일부 북한 문헌에서는 군사칭호가 사용된 사례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군사직위와 군사칭호가 혼용되었음을 시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관이하도 공식적으로 인민군 창설시 군사직위 제도를 사용하였으며 이후 1953년부터 군사칭호가 수여되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당보인 로동신문과 군보인 조선인민군의 분석결과에 근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인민군 창설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종합적인 군관이하 군사칭호의 변천에 관한 연구는 물론 군사칭호 수여기준과 과정 등 세부 분야별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간행물 및 각종 공식문서 발간시 수정도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을 역임한 이 교수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 전략' 등 저서와 다수 논문을 발표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창고 매매·임대

대 지 920평
건 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